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2일 개막

산업도시 넘어 창의도시로... 22일 오후 7시, 광양시청 앞마당에서 화려한 막 올라

산업도시 광양시가 예술과 기술을 아우르는 창의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광양시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7시(식전공연 오후 6시 30분), 광양 시청사 앞마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나선으로 나아가는’으로,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제시한다. 개막식은 약 71분간 진행되며, 미디어아트와 공연예술을 결합한 융복합 무대로 구성된다.

개막식의 총연출은 이이남 작가가 맡아, ‘빛의 여정’을 주제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로봇 오케스트라 영상, 합창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융합했다.

행사는 김귀빈 아나운서(광주MBC)의 사회로 진행되며, 광양시립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린츠와 광양을 잇는 ‘빛의 메시지’ 오프닝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로봇 오케스트라 퍼포먼스와 뮤지컬 배우 윤지인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크리스탈 배우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총감독, 방우송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

특히 양국을 대표해 정인화 광양시장과 크리스탈 배우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총감독이 ‘빛의 상징·거울의 의식’을 주제로 한 개막 선연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 한-오스트리아 간 문화예술 교류의 상징적 순간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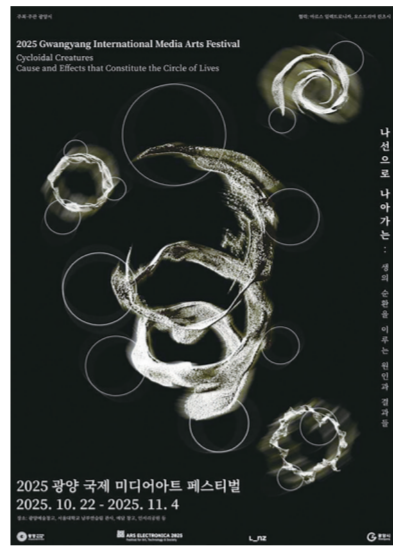
개막식 후반부에는 ‘빛의 오아시스’, ‘빛의 그림자-문명의 경교’, ‘빛을 노

래하다’ 총 3가지 주제공연이 진행된다. 태평소의 웅장한 선율과 VR 드로잉, 현대무용단 ‘프레젠티’의 거울 퍼포먼스, 시민이 함께하는 합창무대가 이어지며 무대의 감동을 극대화한다.

특히 시민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긴 메시지가 미디어월에 실시간으로 투사돼 예술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참여형 개막식으로 완성된다.

행사의 마지막은 ‘빛의 영광’ 피날레 세리머니로 장식된다. DJ와 무용수들이 함께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공연이 광양의 밤하늘을 수놓고, 남도영화제 홍보 영상 상영으로 개막식의 여운을 이어간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스트리아 린츠와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적 인 미디어아트의 흐름과 우리 시의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다”며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지속적인 예술 교류를 바탕으로 광양이 산업도



시에서 창의와 예술의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특별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동구인문학당에서 ‘빨강머리 앤’ 만나보세요”

이달 23일부터 2026년 2월까지, 백영옥 작가 초청 강연도

광주 동구(청장 임택)의 대표 인문 거점 시설인 동구 인문학당에서 오는 23일부터 열두 번째 책 전시인 ‘빨강머리 앤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1908년 첫 출간된 ‘빨강머리 앤’은 이후 원작을 토대로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어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책 종수만도 600여 종이 넘는 ‘빨강머리 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특히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굿즈 또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빨강머리 앤’ 도서 300여 종과 굿즈 100여 점을 내년 2월 22일까지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국, 일본, 미국 등 국내외의 출판사에서 그들만의 색깔을 담아 디자인한 책 표지가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뜨개질로 만든 ‘앤’ 인형은 물론 등장 인물들이 매달린 모빌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계, 에코백, 액자, 퍼즐, 필통, 노트, 카드 지갑, 수첩, 렌티큘러 카드, 안경 닦이, 접시, 사물함, 파우치, 도자기 화분, 독서대 등의 굿즈가 발길을 붙잡는다. 이 굿즈는 일본의 다카하다 이사가가 연



출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첫날인 23일 오후 3시에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우리에게 상상력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진다. 강연에서는 영화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의 원작자이자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의 저자인 백영옥 작가가 ‘상상력은 소설가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밝히는 힘’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오천그린광장이 이번에는 영화관으로 변한다!

순천애니멀필름페스타(SAFF), 오는 24일 오천그린광장서 개막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천그린광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영화축제 ‘순천애니멀필름페스타(SAFF)’를 개최한다.

오천그린광장의 드넓은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도시의 일상에서도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영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새로운 형태의 가족형 영화축제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개막식이다. 24일 오후 7시 오천그린광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인더독>을 연출한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대표 거장 오성운 감독의 최신작 <길위의 몽치>가 개막작으로 상영되며, 감성 싱어송라이터 적재의 라이브 공연으로 개막식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순천애니멀필름페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라는 점에 있으며, ‘함께 걷는 동행(同行)’을 메인 테마로 하여,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상영작은 4개의 섹션(▲자연과의 동행: <플로우>,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주인), <아이로> ▲동물과의 동행: <길위의 몽치>, <굿보이>, <명몽이> ▲친구와의 동행: <쿵푸팬더4>,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소동> ▲가족과의 동행: <짱퐁이네 풍황토>, <살아있게>)으로 오천그린광장에는 1관과 2관을, 조례호수공원에는 3관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천그린광장 1관은, 자연 속 별빛 아래서 즐기는 특별한 영화 관람 경험으로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의 분위기를 재현하며, 2관은 마로니에 숲속의 아늑한 공간과 편안한 분위기를, 조례호수공원의 3관은 아고라 공연과 함께 신나는 영화 관람이 가능한 활기찬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자연 속에서 클래식을 즐기는 ‘가든클래식’ 공연,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우즈이텐겐’의 한국 목소리를 연기한 김장 성우와 함께하는 ‘도크콘서트’, 네오위즈의 인기 모바일게임 ‘고양이와 스



프의 포토존 및 팝업스토어, 다양한 반려용품은 선보이는 펫마켓까지, 반려인과 반려인, 어린이, 가족, 연인 등 오천그린광장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을 위한 풍성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현재 개봉을 앞둔 작품 <굿보이>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강아지 시점의 연출과 스릴러 장르의 결합이라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인간과 반려동물의 교감을 다층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 문화한마당’과 ‘맹맹순천’을 동시에 개최하여 문화·예술·스포츠·산업이 어우러진 반려문화 대축제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영화축제가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치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반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나주시립합창단, 창작음악극 ‘아랑사 아비사’ 특별연주회 개최

나주 설화 ‘앙암바위 전설’이 무대 위 예술로 되살아나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음악극 ‘아랑사 아비사’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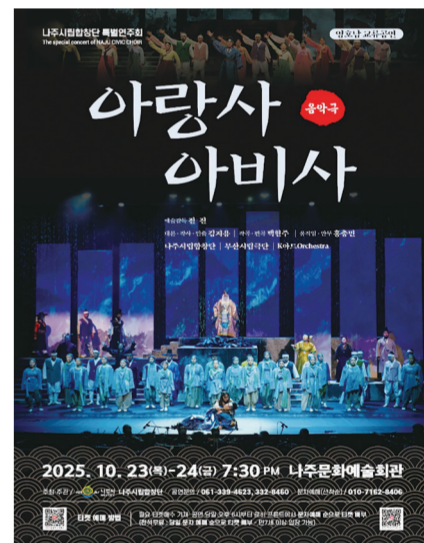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나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나주 지역 설화인 ‘앙암바위 전설, 아랑사 아비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음악극으로 나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예술로 풀어낸 대표적인 지역 문화공연이다.

공연에는 나주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K아트오케스트라가 참여해 합창과 연극,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융복합 무대를 선보인다.

사랑과 기다림, 희생의 이야기를 웅장한 음악과 역동적인 연출로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나주시립합창단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소재로 기획한 창작공



연 시리즈 중 하나로 나주의 정체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주요 장면에서는 전설 속 감정을 표현한 생동감 있는 무용과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전통 설화가 현대적 감성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